

국민의당 탈당 바람…지방선거 입후보자 이합집산 시작

민주평화당 창당작업 본격화

목포서 결의대회…광주는 내달 5일
박홍률 목포시장·고길호 신안군수
국민의당 탈당 ‘민평당’ 입당 밝혀
광역시·기초의원들도 거취 고심

‘분당’ 기로에 선 국민의당에서 통합반대파의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개혁신당창당추진위원회는 25일 목포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광주에서는 2월 5일 광주시당 발기인대회 및 창당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통합 반대파의 대다수가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이 중심인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 여론이 호남에서 높다는 점에서 우선 광주·전남에서 세몰이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평당’ 창당 앞두고 전남서 세몰이=이날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 결의대회에는 박지원 전 대표와 창당추진위 대표를 맡은 조배숙 의원, 전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국민의당 광주·전남·북 의원 18명이 참석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고길호 신안군수를 비롯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과 광역·기초 의원들도 참석했다. 추진위는 이날 창당대회 참석자가 경향 추산 2500여명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DJ와 목포시민께 충성한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안 후보는 호남을 버리고 보수야합으로 가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안철수를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DJ의 햇볕정책과 민생·평화·민주개혁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안철수를 위해 했던 노력, 안철수 지지를 호소해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정배 전 대표는 “호남을 배신하고 모욕한 안철수 대표를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25일 오후 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 전남결의대회’에서 녹색 피켓을 들고 당색을 녹색으로 선포했음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염시킨 안철수 국민의당 깃발을 접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깃발을 들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6·13 지방선거 출마를 두려워하지 마라. 민주평화당의 이름으로 승리해내자”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역량 있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에도 지지율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며 “무능하고 거짓과 배신의 정치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새로운 가치로 시작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입후보자들 이합집산 시작=국민의당 분당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이합집산’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파와 중재파, 반대파로 나뉘면서 국민의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박홍률 목포시장과 고길호 신안군수가 국민의당을 탈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전 대표와 박준영 의원과 함께하기로 했다.

박 시장과 고 군수는 이날 목포해양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의 결의대회에 참석해 신당 참여를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오는 28일 개혁신당(민주평화당)의 발기인 대회에도 참여해 행보를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유일한 국민의당 소속인 김성환 동구정

장은 지역구 박주선 의원이 ‘중재파’로 분류됨에 따라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의원들의 이합집산도 예상된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력 반대해온 만큼 국민의당 탈당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재파’와 통합에 찬성하는 ‘찬성파’인

김동철 의원과 권은희 의원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거취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종 광주시의회 국민의당 대표의원은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합당에 반대한다”면서 “일부에서는 아직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어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2월 4일을 기점으로 거취들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유승민 “대구 정치도 경쟁체제 필요”

산업혁명 정책간담회 참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5일 보수 텃밭인 대구를 함께 찾아가 “대구도 (정치에 있어서)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며 통합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함께 이날 오후 대구에서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하는 ‘로봇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과 경쟁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물과 리더십”이라며 “통합신당이 좋은 인물을 만들 수 있도록 큰 그릇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통합개혁정당은 정당 역사상 첫 동서화합 정당”이라며 “이런 시도가 힘든 일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어려움을 뚫고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면 탄탄한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에 있어서 경쟁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안 대표는 “1당 독재시대는 지역발전엔 큰 해가 된다. 지금 호남은 본격적으로 양당체제다. 그러다 보니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많은 혜택을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며 “대구도 반드시 그렇게 경쟁체제가 되어야 앞으로 대구가 발전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 대표도 “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금처럼 낮은 적이 없다”며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통합개혁신당 간 3파전을 하기에 충분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대구 정치가 역대 대통령을 여러 명 배출하는 등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워낙 오래 집권하다 보니 정체돼 있었다”며 “국민의당과 통합 이후 문재인 정부에 원칙과 기준, 대안을 가지고 협력과 견제를 하는, 한국당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강력한 대안야당,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6성급 호텔·세계 최고 테마파크…

아시아 최고 힐링 리조트 만든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밑그림

미래에셋이 1조원 이상 투자를 약속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밑그림이 나왔다.

도(道) 단위 최초 6성급 호텔과 세계 최고 테마파크 조성, 1000석 규모 컨벤션시설 조성, 케이블카 연계 등 경도에 아시아 최고의 힐링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청사진이다.

미래에셋은 다음달 초 마스터플랜 설계디자인 회사를 선정해 오는 4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려고 설계디자인 회사를 국제 공모했다. 5개 회사로부터 1단계 제안서를 접수한 뒤 지난해 11월 3개 회사로부터 2단계 제안서를 받아 평가 등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초에 1개 회사를 선정해 4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캘리슨 알티케이엘(Callison RTKL)은 도시형 인프라와 고밀도 개발, 네덜란드 유엔 스튜디오(UN Studio)는 미용산업과 깨끗한 이미지, 일본 니켄 세케이(Nikken Sekkei)는 예술·문화 중심

프로그램 등을 특징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제안사별로 총사업비 1조~2조원 규모로 최고급 6성급 호텔과 4성급 호텔, 1000석 이상 컨벤션 시설, 마리나, 대관람차, 인공해변·서핑장 등을 포함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이 중 1개 회사의 설계디자인을 기본 컨셉트로, 탈락한 2개 회사의 강점을 추가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오는 4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8월 개발계획 변경 신청, 내년 2월 실시설계계획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2월 착공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에는 다도해 해양관광 거점이자 아시아 최고 수준 리조트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월9일 체결된 투자 유치·매각 계약에 따른 투자 이행 보증으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9년까지 1조원 이하를 투자하면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전남개발공사는 경도 투자유치 후속조치로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기존 골프장, 콘도, 도선 등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골프장 등록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GOLDEN BLUE
Super Premium Whisky

The Diamond
Exclusive Special Release

450ml 36.5% ALC

DRINK SMOOTHLY 골든블루는 부드러운 음주문화를 선도합니다.

경도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